“말 대신 표정·손짓으로… 의사소통 벽 없었다”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수어통역사, 동행 서비스
연평균 300명·7300여건 제공…제도적 관심 절실

공미현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어통역지원센터 수어통역사(오른쪽 첫번째)가 3일 오전 광주보훈병원에서 농아인 양길석(왼쪽 첫번째), 염동자 부부와 수어로 소통하고 있다.

2월 3일 한국 수어의 날

“수어통역사 덕분에 원하는 시간에 의사 선생님과 대화하고, 약도 편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3일 오전 10시께 광주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 원무과 대기석에 앉은 공미현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어통역지원센터 수어통역사는 손과 팔을 풀며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뒤 병원에 도착한 농아인 염동자(61·여)씨와 남편 양길석(64)씨는 접수를 마친 뒤 공 통역사를 향해 양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 공 통역사도 밝은 표정으로 손짓해 화답했다.

공 통역사는 이날이 2월3일 ‘한국 수어의 날’임을 부부에게 수어로 전했다. 양씨는 엄지와 검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는 동작을 하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에게 “농아인의 날이니 웃자”고 다독였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공 통역사는 농아인 관련 정보와 염씨의 컨디션 등을 이야기하며 긴 대기 시간을 채웠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들어서자 부부는 양손 주먹을 가볍게 쥐고 위아래로 흔들며 의사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라는 수어다. 의사는 최근 근황과 복용 중인 약의 부작용 여부를 물었고, 공 통역사는 질문을 정확한 수어로 옮겼다. 평소 말수가 적은 염씨는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턱에 대고 ‘괜찮다’는 뜻을 전한 뒤, 양손 엄지와 검지를 떼었다 붙이며 ‘약을 잘 먹고 있다’고 표현했다. 공 통역사는 내용을 다시 확인해 의사에게 전달했다.

진료를 마친 부부는 공 통역사의 도움으로 다음 진료일을 3월4일로 예약하고, 의료비·주차비 수납과 한 달 치 약 처방까지 무리 없이 마쳤다. 의료 과정 전반에서 ‘의사소통의 벽’은 느껴지지 않았다.

공미현 수어통역사는 “농아인을 만날 때마다 삶의 배경과 상황을 들으며 배경지식을 쌓고 있다”며 “운전 중 영상전화를 받지 못할 때는 늘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최근 법정 수어통역 전문교육을 받았다”며 “1993년부터 통역을 해왔지만 여전히 어렵다. 퇴근 후에도 매일 수어 공부를 이어간다”고 덧붙였다.

양길석·염동자 부부는 “세 살 때 열병으로 청력을 잃었다”며 “아내가 2024년 5월부터 우울증을 앓으면서 대화가 줄어들었는데, 수어통역사를 만나면 잠시나마 활발해져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3일 한국 수어의 날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농아인도 차별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사 확충과 제도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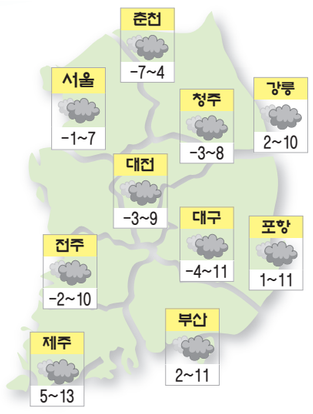
현재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어통역지원센터는 의료 분야를 비롯해 일상생활·법률 통역, 긴급 상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연평균 농아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약 7300건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 수어의 날’은 한국 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2016년 2월 3일)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이다. 한글날, 한글 점자의 날과 함께 언어 관련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있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

오늘의 날씨

해뜸 07:30 해짐 18:04 달뜸 20:38 달짐 08:47



미세먼지 확인하세요!

광주	광주	-1~11
	목포	1~8
	여수	1~10
전남	순천	-2~12
	구례	-3~11
	해남	-4~11
	완도	-1~10
	흑산도	5~11
	고흥	-4~11
	진도	-1~10

목포	밀물(고)	03:36 / 16:16
	썰물(저)	08:53 / 21:24
여수	밀물(고)	10:56 / 23:07
	썰물(저)	04:29 / 16:55

광주 서구가 3일 농성2동 복합청사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광주 서구, 농성2동 복합청사 개청

주민 민원 업무·독서·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

광주 서구가 3일 농성2동 복합청사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농성2동 복합청사는 15년 전 건립된 현 서구청사의 과밀화와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노후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구는 2020년부터 5년간 국비와 시비, 구비 등 총 196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946㎡,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건립했다.

복합청사는 주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학습·소통 기능별 공간을 체계적으로 배치했다. 지하 1층에는 주차장, 1층에는 교통행정과와 지상주차장, 2층에는 교통지도과와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섰다. 3층에는 농성2동 주민자치회의실과 작은도서관, 서구평생학습관이 조성됐으며, 4층에는 농성문화의집과 생활문화센터, 5층에는 농성2동 다목적홀이 마련됐다.

주민들은 민원 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독서, 평생학습, 문화활동,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주민 대표 5명과 공무원 5명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숙의협의체를 구성해 행정과 주민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쟁점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전원 합의에 이르는 결론을 도출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광주 중앙공원 1지구 SPC 전 대표 ‘징역 4년’

법원 “대표 지위 이용해 범행 주도”…공범 2명 ‘집행유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허위 용역비를 청구해 60여억원을 챙긴 특수목적법인(SPC)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전 대표 A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C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판결됐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사업제안서 작성·토지 및 지장물 협의 매수 용역 등을 허위로 꾸며 부동산 PF대출금 중 총 60억8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현직 대표와 감사였던 이들은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은 용역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자금집행 동의권자가 속아 날인한 집행 요청서 등을 근거로 부동산 PF대출 수탁업체에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피해 신탁회사들이 증빙서류의 구비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점을 악용, 대출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A씨는 대표이사 지위에서 범행을 주도했고 합계 6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챘다”면서 “편취금 중 상당액을 지인들의 계좌로 송금해 출처를 불분명하게 한 후 이를 반환받아 실제 이익을 챙긴 것으로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전남 경찰, 6·3 선거사범 전담팀 편성

광주·전남경찰청이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는 등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은 사이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5개 경찰서 지능팀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48명이 투입된다.

경찰은 전담팀 편성과 함께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기조를 세웠다.

특히 △공무원 선거 관여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 사건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소속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조작 정보 유포와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 이용을 집중 단속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전담팀은 전남청과 도내 22개 경찰서에 꾸려졌으며, 경찰관 167명이 편성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한밤 중 화재…소화기로 진화

만년필

○…한밤 중 광주 도심 한 아파트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소화기 한 대’로 진화돼 눈길.

3일 광주 광산소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30분께 광산구 수완동의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

불을 발견한 거주자는 곧바로 소화기를 집어 들고 초기 진화에 나섰고, 불길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잡혔다고.

이 불로 보조배터리와 침구류 일부가 그을리는 데 그쳤고,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화재 원인 등을 분석한 소방당국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한 신속한 초기 대응이 화재 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혀.

나홍원 광산소방서장은 “분말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다”며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각 가정에서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임정호 기자 ljh4415@

광주 송정역 폐 유흥가, 시민 공간으로 탈바꿈

광산구, 송정리 1003번지에 2029년까지 66억 투입
주차장·쉼터 조성…포장마차 등으로 지역 활성화도

광주 관문의 첫인상을 훼손해 온 이른바 ‘송정리 1003번지’ 일대가 공공 주도의 정비를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광주 광산구는 광주송정역 주변 도시 환경 개선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 역 맞은편 폐 유흥시설 밀집 지역을 정비하는 ‘광주송정역 폐 유흥가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지역 난제를 행정이 직접 나서 해소하는 선제적 조치다.

정비 대상지는 광주송정역 건너편에 위치한 노후 유흥업소 건축물 11개 동이다. 해당 지역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업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2005년 화재 사고까지 겹치며 급격히 쇠퇴했다.

이후 도시재생사업과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 등 여러 개선 시도가 있었지만, 소유 구조와 사업 구역 제외 등의 한계로 슬럼화가 장기화됐다.

광산구는 이달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9년 12월까지 총 66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900㎡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35면)과 585㎡ 규모의 쌈지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비 46억원, 건물 보상비 9억원, 공사비 11억원이 투입된다.

정비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방치된 폐건물을 철거해 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한다.

이후 주차장과 쉼터를 조성해 늘어나는 송정역 이용객의 주차 수요를 흡수하고, 시민이 머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한다.

광산구는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주간에는 주차장으로 운영하되, 야간이나 주말에는 청년과 지역 상인이 참여하는 포장마차와 오픈마켓을 열어 문화·상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쌈지 쉼터는 버스킹과 전시가 가능한 소규모 문화 거점으로 조성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본격적인 정비에 앞서 대로변 어두운 구간에는 야간 조명 설치와 작품 전시를 통해 밝은 거리 조성 사업도 우선 추진한다. 광주 관문에 걸맞은 안전하고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조기에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광주송정역은 KTX와 SRT, 공항 접근성까지 갖춘 호남권 핵심 교통 거점이지만, 역 주변 낙후 공간이 도시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정비는 역 광장 확장, 노후 여인숙 거리 정비 등과 맞물려 송정역 일대 공간 구조 전반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주를 처음 만나는 공간이 오랫동안 방치된 채 남아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며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공공 정비를 통해 송정역 맞은편을 시민이 머물고 싶은 공간, 지역 활력을 이끄는 거점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